**수전절, 아니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신부들은 어떤 절기를 기념해야 하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 [14:15](x-apple-data-detectors://0)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께서 기록하신 복음서를 통하여 누가 그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간단 명료하게 내리십니다.  
  
요 [14:15](x-apple-data-detectors://0)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 [14:21](x-apple-data-detectors://1)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요 [14:23](x-apple-data-detectors://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 [14:24](x-apple-data-detectors://3)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위에서 쓰여진 ‘계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미쯔보트(מצבת)’ 로써 그 의미가 그의 자녀들에게 모세와 선지서를 통하여 직접 주신 하나님 계명들을 뜻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계명들을 따를 때에 삶에서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monosyllable language 즉, 한 글자마다 의미가 담겨있는 단음절 언어 입니다. 계명/행위를 가르치는 히브리어 알파벳[[1]](#endnote-1)은 ‘멤(מ), 짜디(צ),봐브(ו), 타브(ת)’로써, 이 4 개의 글자들은 순서대로 ‘피, 소망, 못, 언약’이라는 각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메즈[[2]](#endnote-2) 해석의 각 글자들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창조주 아버지의 아들인 ‘구원주 예수님의 피를 통한 소망의 영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암시합니다.  
  
히브리 고어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유기성 입니다. 이는 막연히 추상적인 의미가 아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또한 맛보며 만질 수 있는 오감에 근거하여 실증[[3]](#endnote-3)되는 언어 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되어진 명령을 읽음으로 혹은 들음으로 안다는 것은 동시에 그 말씀을 몸소 실행한다는 것이며, 만일 믿는 자의 삶에서 실행되지 않은 여호와의 계명이 있다면 이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나 무의식적 혹은 환경에 쏠린 타협에 근거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칭함받으셨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께서 그의 기록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니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26절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때 쓰신 ‘행위’ 가 바로 위의 히브리어로 ‘미쯔보트(=계명)’ 입니다.   
  
우상으로 젖어든 열방 중에서 전능자를 알기를 갈망하고 온 힘으로 추구했던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어 축복의 언약[[4]](#endnote-4)을 맺으시고, 그의 유업을 받은 의(義)의 씨앗 이삭[[5]](#endnote-5)과 야곱[[6]](#endnote-6)에게 재확인 해주셨읍니다. 그리고 출애굽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중에 성전이 파궤된 후에 희생제사와 그와 관련된 규례부분을 제외하면, 신약의 1050 조항들이 모세언약의 원칙적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야훼 아버지의 선한 가르침으로, 온전히 순종했을때에 받게 될 평안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모세 오경 계명에 관한 하나의 작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절로 지키라고 주신 일곱 절기를 기념할때 종종 테이블에 올라오는 아주 맛있는 석류열매의 알갱이들을 합한 숫자가 총 613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만드신 귀한 실과속에 꿀보다 달다는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길 만을 쫓고자 열망하는 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아름다운 자연속에 숨기신 힌트인것같습니다.

창조주만을 사랑하던 쫒던 믿음의 선조들과 남아있던 의로운 자들, 그리고 태초부터 창조와 구속사를 지휘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어지신 창조주, 입법주[[7]](#endnote-7)와 구원주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되어진 모든 약속의 후예, 그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신 영생의 교훈과 축복의 선물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의 음성이 가르침이라는 뜻인 토라(Torah)[[8]](#endnote-8)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열방의 악을 대표하는 가나안의 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정하고 옳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위하여 주신것 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야훼의 은혜로 말미암고, 야훼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음성을 청종하는 성도들의 ‘행위와 믿음’, 이 두 부분이 합치어 하나될 때에 ‘의롭다’는 칭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행위’인데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토라, 모세오경에 명시되어진 계명들을 따르는 것이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33절의 말씀에서 ‘의’는 어느 개인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정의되는 의로움이 아니고, 다름아닌 아버지 자녀에게 주신 토라의 가르침을 자체를 칭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와 구원의 입문을 통한 창조주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은 그 어느누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써 창조주 아버지의 독생자 죄없는 어린양의 피로만 구속[[9]](#endnote-9)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죄악에서 구속받은 자녀들이, 이 가르침을 매일 온마음으로 공부하며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할때 꿀보다 더 단 말씀의 파라다이스의 축복 안에서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늘 호흡하게 됩니다.  
  
미국에 임시로 있다가 시민권을 받았다 했을때, 더 이상 법을 안지켜도 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미국의 법을 잘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법률에 따라 삶의 양식을 적용할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듯이, 야훼께서 모든 생명의 가르침은 자녀들의 앉으나 서나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기억하고 나누어야 할[[10]](#endnote-10) 믿는 자들의 삶 자체입니다.

창조주의 가르치심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세상 권세를 잡은 바벨론의 문화체제 안으로 흡수되어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미래의 염려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샬롬이 부재한 삶의 패턴 속에 묶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온마음과 힘으로 걷고자 하는자들을 넉넉히 도우시며, 말씀에 대한 지식, 지혜와 명철함을 추측할수도 없이 나눠주시며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토라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 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주시고, 토라를 순종한 자녀들의 영원한 축복과 불순종한 자들이 겪게 되는 댓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므로, 열방의 문화 속에서 섞이지않고 구별된 삶을 선택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야훼의 주신 모든 계명의 일점 일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11]](#endnote-11) 것이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볼때, 그 한귀절 귀절들의 가르침을 상세히 공부하고 그 깊으신 의미를 깨닳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급선무입니다.  
  
3500 여년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12]](#endnote-12)에 창조주 야훼 아버지께서 결국 그들을 땅끝으로 흩어지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단 한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야훼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명에서 더하고 빼며 벗어나, 영원히 청종하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왕의 단일 왕국은 이후에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왕 때에 남유다 왕국의 두 지파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남게되고, 우상을 먼저 쫒아갔던 나머지 10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로 분리됩니다. 지속적으로 보내진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의 경고에 귀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나갔던 북왕조 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주전 722 년에 앗시리국에 침략당하며, 젖과 꿀이 흘렀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밖으로 쫒겨납니다.[[13]](#endnote-13)

땅 끝의 열방속으로 흩어지게된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방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체성의 부재 속에서 야훼의 이름[[14]](#endnote-14)과 생명의 가르침들을 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2000여년 전 빛으로 오신 야훼 하나님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 없는 피로써 누구든지 지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여 그를 구원주 메시아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야훼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의 관계로 다시 구속되게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믿는자들이 걸어야 될 그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일 대학의 토튼[[15]](#endnote-15)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wo Houses: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두 집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성경의 이스라엘(북 이스라엘의 집, 에브라임, 요셉)이 유대인(남유다의 집)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극히 아기 수준 즉, 성경의 알파벳 읽는 수준이며 성경의 7/8의 이해가 닫혀져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주신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이 먼저 땅끝으로 쫒겨나게 된 것인데, 그들의 불순종은 예수님 승천하신지 2천년이 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삶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16]](#endnote-16)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5-6절에서 열두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17]](#endnote-17)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18]](#endnote-18)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죄로 인하여 722년 동안을 땅끝으로 쫒겨 갔다가, 다윗의 언약[[19]](#endnote-19)의 뿌리로 보내주신 구원주 메시아의 피를 통하여 생명의 옛 길, 토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북이스라엘 집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시에 불순종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돌아가지 못한 남유다 집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그 후손들의 언어를 살펴볼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어근으로 부터 파생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부터 동쪽의 땅 끝인 한국의 언어를 한 예로, ‘돌아가셨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는 ‘멤(מ), 봐브(ו), 타브(ת)’입니다. 고어 속의 의미를 한 글자씩 살펴볼때 ‘피로 보장되는 언약’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정신 속에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이 흙으로 빚어짐이 기록된 토라 말씀이 간직되어 있고, 선택되었으나 흩어진 백성의 후손인 우리가 구원주 메시아의 보혈로써 창조주께로 다시 회복되는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조상들 마음 속 깊숙히 잠재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24 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37, 39절에는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은 다 그에게로 올것이요, 맡겨 주신 양들을 쫒지 않으시며 보내주신 자의 뜻대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20]](#endnote-20)이라고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의 좁고 곧은 길은 아버지 음성을 청종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적은 숫자인데,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볼때, 그의 음성을 따르는 그의 양들은 주전 722년 앗수리아로 인하여 귀배되어진 이스라엘의 양으로써 땅끝으로 쫒겨나간 북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바벨론에서 돌아가지 못했던 남유다의 후손들임을 알수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말씀, 즉 토라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 후손들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간에, 이스라엘로 하나되어의 걸어야할 길은 민수기 15:15절에서 밝혀주신 그대로,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고 주신 토라의 말씀을 청종하는것 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지신 구원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매 순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절대 진리인 생명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공부하며,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의 옛길로 발걸음[[21]](#endnote-21)을 돌리는 결단을 해야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음성 곧 그의 가르침은 변함없는 절대 진리이며, 그 진리는 피조물의 지성과 철학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의 절대가치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인본주의 바탕의 지식으로 끝없이 변동되는 삶의 가치속의 타협된 진리를 가르치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로부터, 온마음과 정성으로 토라를 청종하며 예수님의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양들을 양육하는 신실한 종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성령과 심판의 검[[22]](#endnote-22)입니다.

기독교에는 현재 대략 41,000 여개의 다른 교단들이 있는데, 1900년도에 측정한 1600 교단에 비해서 약 30배 정도 더 분리가 되었습니다.[[23]](#endnote-23)

좁은문과 길에는 상관없는 인본주의 신앙이론으로 브로드 웨이, 넓은 길의 다원종교 신앙 노선에서 뿌리를 빼고 영원한 진리, 아버지의 주신 음성을 향해 걸어나가지 않는다면 이많고 늘어나는 교단의 숫자보다도 더 큰 신앙의 혼돈 속에서 니므롯의 바벨탑같이 무너져버릴 자기 의(義)에 만족하는 이생의 자랑 만을 쌓게 될 것입니다.

자유신학[[24]](#endnote-24), 번영신학[[25]](#endnote-25)과 대체신학, 사대주의[[26]](#endnote-26) 등의 부정적 환경의 영향에서 각자가 벗어나와야만, 이미 밝혀주신 약속의 가르침을 굳건히 붇잡을수 있으며 진정히 알아야 할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동의하신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굳은마음에 근거로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야훼께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귀담으려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재현되는 것을 보시며 통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27]](#endnote-27)  
  
한 해 중에 12 월은 그 어느 달보다도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로마 오렐리안 황제가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이방교의 태양신의 탄생 날로 쥴리언 캘린더 주후 274년에 선정한 12월 25일을, 다시 콘스탄티누스 황제시 주후 324년 니케아 공회의 결정하에서 그들의 이방절기를 히브르 멧시아의 탄생일이라고 접목시켜 지키게 한 그 날을, 크리스천,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등 각자의 신앙에는 관계없이 매해 가장 큰 연중행사로 기념되어집니다.

다원주의[[28]](#endnote-28)신앙노선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체의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만들게된 새로운 종교체제 속에서 인간의 전통으로 계승되어진 태양신의 기념날을 창조주 야훼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혼합시킨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토라를 통해 가나안 열방의 길로 빠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주셨고, 선지서들을 통하여 이방신들에게 올려졌던 것들을 모두 다 부셔서 태우고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의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보면, 일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날을 전후로, 로마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술취하고 혼잡한 행위를 하며 살인을 해도 징벌이 없는, (마치 심판받기전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함 같이) 흥청되던 날들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력인 그레고리안 달력[[29]](#endnote-29) 365일 중에는 단 며칠만이 빠진 나머지 많은 날들이 창조주께서 증오하신다고 하였던 이집트, 바벨론, 로마의 미화된 우상신들이나 다원주의 종교의 피조물들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구원주 보혈을 통하여 창조주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그의 자녀들은 피조물들의 지혜로 짜낸 전통적인 날들을 토라말씀 속의 절기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되고, 또 견주게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인간의 전통[[30]](#endnote-30)으로 세운 날들로 야훼의 절기를 대체해버린 지난날의 누룩들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자 좁은문을 향하는 다시 모아지는 잃어버렸던 양들의 발걸음을 지체시키는 덫입니다.

현대에 최고의 설교자중에 한 분이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1871 년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으며, 그러므로 믿는자들은 이러한 절기를 혐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19 세기 후반까지 크리스마스는 국가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 같이[[31]](#endnote-31)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온 마음으로 청종하라고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 있는 일곱개의 대절기[[32]](#endnote-32)들은 멧시아되신 예수님을 깨닳도록 연결시키는 이 땅 위에 그림자이며 창조주 야훼 아버지의 피조물을 향한 완벽하신 사랑,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약속의 후손들의 마음과 골수에 깊숙히 새겨주시기 위하여 태초[[33]](#endnote-33)부터 이미 정하신 야훼의 명절들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한순간에라도 야훼의 음성, 그 생명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깨닫고[[34]](#endnote-34) 그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의 행위(미쯔보트)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그후로 갱신될 영원한 새 하늘과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완전히 바꿀것입니다.   
  
이삭 뉴튼[[35]](#endnote-35)경께서는 “마지막 때쯤되어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되어 일어서며, 그들은 선지서들의 예언을 집중하며 거대한 혼돈과 반대세력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않고 타협없는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긍휼로써 통치하실 천년왕국, 그 소망의 날이 이 땅에 도래 되었을 때에 심판주 예수님으로부터 지극히 작은자[[36]](#endnote-36)라고 칭함되지 않으려면 그의 영원한 생명의 가르침, 말씀의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의 결정적인 책임이 각자에게 있는 중대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의 8일 동안은 유대력[[37]](#endnote-37) 5775년의 수전절 입니다.

이날은 레웨지파의 마태티아와 그 아들들이 그리스의 셀리우시드 왕조의 악한 통치에 봉기하여 주전 166년 예루살렘 성전 탈환하고 정결케한 뒤에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소절기[[38]](#endnote-38)입니다.

하루 분량만 있섰던 메노라 금촛대의 기름이 팔일 동안이나 지속되며 밝혀주었다는 기적이 동반된 이 소절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을 걸으시며 그가 멧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39]](#endnote-39)

역대상 24:7-19절과 누가복음 1:24-27, 36절에 기록된 자료를 읽으면, 세례요한의 탄생이 성경력의 니산 (3-4 월) 첫달 무교절에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로 육개월 뒤인 티쉬리 (9-10 월) 장막절에 태어나셨음을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된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는 창조주 예정하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볼때 장막절[[40]](#endnote-40)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한해 전 키슬레브(11-12월) 수전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것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어두움에 처한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볼때도 예수님께서 ‘빛의 절기’인 수전절에 잉태되셨다는 것이 성경말씀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패턴중에 적용되는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41]](#endnote-41)

그의 보혈로 암흑의 세상에서 구별됨을 해주신 야훼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결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부들은, 앞으로 재림하실 그 날을 갈망하며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귀한 "빛의 절기" 기념하시고 에녹이 야훼와 함께 걸었던것 같이 성령 안에서 축복된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한국인들은 노아의 아들 셈족[[42]](#endnote-42)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되는 히브리인[[43]](#endnote-43)임을 인식하고 야훼께서 정하여주신 장자권의 위치를 에서처럼 경시하여 없애지말며, 로마문화와 유럽의 다원주의로 씨뿌려진 기복적 종교생활의 틀과 사대주의에 의한 종속된 문화생활에서 벗어나, 창조주 정하신 영생하는 진리의 좁은길로 걷는 기쁨의 발걸음에 박차를 더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자녀들을 향한 토라, 가르치심의 목적되시며[[44]](#endnote-44) 과녁이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좁은길을 걷고자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수들에게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45]](#endnote-45) 그대로 그의 창조와 구속, 그리고 영생의 계획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안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긴 역사에 쌓여온 인간전통과 그 누룩들을 매 순간 야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에 따른 분별력으로 구별하여 떼어내 버리고[[46]](#endnote-46) 호흡있는 동안에 세상의 길과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야훼이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며 결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암흑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신부들은 앞으로 재림하실 그날을 갈망하며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귀한 “빛의 절기”를 기념하시고 에녹이 야훼와 함께 걸었던것 같이 성령 안에서 축복된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전지하심으로 정하여 주신 토라 말씀이 우리 발을 밝히는 영원하신 등불[[47]](#endnote-47)임을 깨닫고 영생의 아름다운 땅, 약속의 새 예루살렘을[[48]](#endnote-48) 향해 성실히 걸으시며 받으신 등잔에 가득한 미쯔보트의 기름[[49]](#endnote-49)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뉴 아도나이 애하드- 청종하라 이스라엘아, 야훼는 우리의 엘로힘이며, 야훼는 한 분이시라.”

                                                             신 6:4

Article provided by

Korean Hebraic Roots and Heritage Ministry  
  
Email:  contact@ko[hebroots.com](mailto:Kohebroots@gmail.com)

1. ‘알파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글자 중에 첮째와 둘째 글자인, 알레프 (א)와 뱉(ב)이 합하여진것임. [↑](#endnote-ref-1)
2. 히브리의 뿌리적인 성경 말씀의 해석법은 기본적으로 4 가지가 있음.

   ***P***eshat – 직접적 해석; ‘plain’ or the direct meaning

   ***R***emez – 힌트, 암시의 해석; ‘hints’ or deep (allegoric; hidden or symbolic) meaning beyond just the literal sense.

   ***D***erash – 탐구, 비유, 연구의 해석;the comparative (midrashic) meaning, as given through similar occurrences.

   ***S***od – 비밀한 뜻을 해석;‘secret’, ‘mystery’, or the esoteric/mystical meaning, as given through inspiration or revelation. [↑](#endnote-ref-2)
3. 예: ‘말씀’은 히브리 단어로 ‘다봐르’인데 이 단어 동시에 ‘물질’, ‘실체’, ‘물체’를 의미함. [↑](#endnote-ref-3)
4. 아브라함의 언약 – 창 12:1-3, 15:1-21, 22:15-18 [↑](#endnote-ref-4)
5. 창 26:3-5 [↑](#endnote-ref-5)
6. 창 28:3-15; 46:2-4 [↑](#endnote-ref-6)
7. 약 4:12 [↑](#endnote-ref-7)
8. 토라 (Torah) – 총괄적으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음성, 야훼 (YHVH) 아버지의 ‘가르침’을 의미함.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을 교훈하듯이 야훼 창조주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하신 완벽한 모든 가르침. 신 30:20; 32:46-47; 또한 구체적으로는 히브리 성경의 첫 다섯권 즉 창, 출, 레, 민, 신 을 통칭함. [↑](#endnote-ref-8)
9. 레 17:11 [↑](#endnote-ref-9)
10. 신 6:7 [↑](#endnote-ref-10)
11. 마 5:18 [↑](#endnote-ref-11)
12. 출 19:3-8 [↑](#endnote-ref-12)
13. 왕하 17:1-18 [↑](#endnote-ref-13)
14. 이스라엘의 유일신의 이름은 “야후와 (Yahuwah)” 혹은 “야훼 (Yahweh)”로 발음을 합니다. 르네상스와 16세기의 종교 혁명때 크리스찬 신학자들과 번역가들에 의하여 그 성스러운 고유의 이름이 일반명사인 하나님 (God)과 주님 (LORD)으로 바뀌어 졌음. 창조주의 이름 야훼는 히브리 성서에 6,828번이 나오는 것을 볼때 아버지께서는 그의 이름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불러지게 되시길 원하심. “야 (Yah)”는 창조주의 약자 이름. 시편 68:4절과 할렐루”야”에서 처럼 모음으로 끝난 한국어 이름을 부를때 “야”가 붙는것은 마치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쓰이는 접미어와 유사점임. [↑](#endnote-ref-14)
15. Prof. C.A.L. Totten [1851-1908], of Yale University [↑](#endnote-ref-15)
16. 왕하 17:15-16 [↑](#endnote-ref-16)
17. 렘 50:6 –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음. 예수님(히브리 이름: Yehoshua)께서는 이들의 선한 목자임심을 가르킴. 에스켈 34:23-24; 마가 5:4-5; 요한 10:11-16; 마가 6:34; 계시록 7:17 [↑](#endnote-ref-17)
18.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복음은, 생명의 옛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구원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닳는 중생과동시에, 뒤찾은 생명의 가르침을 향하여 회개(히브리: 테슈바, 언약으로 되돌아가다는 의미) 하고, 그 옛길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을 말함. 옛 토라의 길로것는 행위가 전혀 따르지 않고, 단지 감정이입의 번복되어지는 입술만의 고백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들의 첫 부활에 참여할수 없슬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함. [↑](#endnote-ref-18)
19. 역대하 13:5 [↑](#endnote-ref-19)
20. 모세의 첫 출애굽은 육신으로 살아있던 이스라엘 12 지파 후손들과 그들과 함께 야훼를 섬기기위해 쫒아나온 이방인들이었음. 예수님의 재림과 이루어질 두번째의 출애굽은 토라(Torah) 말씀을 청종하며 의로운 길을 걸으셨던 첫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될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육신으로 그때까지 살아서 토라(Torah)의 길을 미쯔보트하며 걷는자들 모두가 포함됨. 기억할것은 Commonwelath of Israel에는 12지파들의 후손들과 그들속에서 야훼의 음성을 청종했던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지명되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오는, ‘그니스 족속’이었습을 한 예로 볼수있음 (민 32:12, 여 14:6, 14) [↑](#endnote-ref-20)
21. 렘 6:16 [↑](#endnote-ref-21)
22. 엡 6:17; 계 1:16, 19:15 [↑](#endnote-ref-22)
23.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at Gordon-Cornwell Theological Seminary [↑](#endnote-ref-23)
24. 성경해석의 바탕을 이성에 두며, 성경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기독교 신학의 한 유파. [↑](#endnote-ref-24)
25. 기독교 교리로서 주로 말라기서를 강조하며 1950년대 등장.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안정과 번영을 주신다는 기복적 성향을 가진것으로,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의 많은시간을 할당하는 중심 토픽임. [↑](#endnote-ref-25)
26. 대체신학: 교회가 창조주의 계획, 목적, 약속들에 관한것을 고대 이스라엘을 대체하여 받았다는 교리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렸던 의도가 뿌리로된 신학의 유파. [↑](#endnote-ref-26)
27. 막 7:6-9 [↑](#endnote-ref-27)
28. 다원주의: 여러 다른 종류들의 신앙과 생활양식을 혼합시켜 하나의 큰 주류를 만드는 이데올리기. [↑](#endnote-ref-28)
29. ‘서양 달력’ 혹은 ‘크리스챤 달력’으로 알려진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고있는 달력으로 교황 그레고리 13세에 의해 1582년에 책정됨. [↑](#endnote-ref-29)
30. 겔 36:19; 막 7:8,13 [↑](#endnote-ref-30)
31. 슥 2:8 [↑](#endnote-ref-31)
32. 모세가 야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한 야훼의 7개의 절기 (레 23:1-44). “7”개의 절기속에는 인간 창조후의 6천년의 역사와 예수아 재림후에 올 천년왕국의 메세지가 새겨져있다. 출애굽기 12:16에서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miqra 로서 결혼식하기 전에 연습하는 리허설의 뜻을 지님. Rehearsal의 영어 단어는 ‘re’ (다시), ‘hear’ (들으라) 라는 파생어로써 자녀들이 번주한 삶 가운데 예슈아는 모세와 선지서를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목표이며 과녁이심. 성전 파궤후 이 절기를 정확하게 지킬수 있는자들은 없지만, 예슈아의 재림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길 기대하는 자녀들은 야훼의 절기를 성령께서 비추어주시는 대로 온마음과 정성으로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 율법주의와는 판이한 것으로, 율법주의의 정의는 인간들의 행위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비성경적인 이론임. [↑](#endnote-ref-32)
33. 창 1:14 ‘사시’, 영어로는 seasons (계절들)로 번역되었으나 히브리 단어는 (moedim – 모아딤)으로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 ‘정해진 시간’, 혹은 ‘축제’임. [↑](#endnote-ref-33)
34. 삼상 15:22 [↑](#endnote-ref-34)
35. Sir Isaac Newton, 1642-1747 [↑](#endnote-ref-35)
36. 마 5:19 [↑](#endnote-ref-36)
37. 유대력은 세상의 창조에서 부터 시작하며 창조시기를 주전 3760으로 계산하기에 현재쓰는 양력에 이숫자를 더하여야한다. 한달을 주기로 같은 모양이되는 달이 기준이 되며, 첫달인 유월절로 시작되는 봄의 ‘4’ 절기와 가을의 ‘3’ 절기, 정해진 총 ‘7’개의 야훼의 절기가 표시되어 있는데,이것은 주후 4세기에 랍비 힐렐 (Rabbi Hillel-II) 가 수학, 행성, 태양 및 달의 위치를 연구하여 책정된 것임. [↑](#endnote-ref-37)
38. 성경의 두 소절기는 ‘수전절’과, 주전 4세기 에스더 9장 17-32절에 기록된, 남유다 집의 후손들이 원수 하만에 의한 음모, 민족적인 학살의 위험 상태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이 있음. [↑](#endnote-ref-38)
39. 요 10:22-23 [↑](#endnote-ref-39)
40. 레 23:34, 신 16:13, 슥 14:16, 18 – 스가랴 선지서를 통하여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되는 육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말절을 기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들의 나라에 가뭄이 들게 될것을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훼의 절기는 창세기 1:14절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전지하심으로 정해진 그의 특별한 날들임. [↑](#endnote-ref-40)
41. 전 1:4-11; 해아래 새로운것이 하나도 없고 지난 시간 있었던 일이 앞으로 있을것이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마지막 환란시기는 오기전의 세상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처럼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게 된다. 첫 출애굽때 리더의 이름이 여호수아, (아람어 – 예수아)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귀환했을때 대제사장 이름도 여호수아였으며, 재림하시는 왕중의 왕의 이름도 여호수아 (예수님)임. 이는 성경 역사의 동일한 패턴을 기록하게 하시어, 창조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놀람이 없고 늘 믿음안에서 샬롬, 평안을 주시기 위함임. [↑](#endnote-ref-41)
42. 셈족: 남서 아시안계의 민족으로 노아의 아들인 셈의 계통. 아프리카 아시아의 언어를 쓰는 이들로써 히브르와 아랍등의 유색 인종들이 이에 속함 (The Random House College Dictionary, Revised Edition, 1988) [↑](#endnote-ref-42)
43. ‘히브리’ 의미는 ‘건너갔다’는 의미. 오늘날 세상의 영적 이집트를 벋어나서 야훼의 가르침을 청종하는 모든 사람들. [↑](#endnote-ref-43)
44. 롬 10:4 의 있는 율법의 ‘마침’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의 ‘텔로스 (G5050)’ 의미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의미에 끝이 아니고 ‘ goal (목적), aim (과녁)’ 이라는 의미임. [↑](#endnote-ref-44)
45. 암 3:7 [↑](#endnote-ref-45)
46. 참조: 출 12:19-20, 눅 12:1, 마 16:5 [↑](#endnote-ref-46)
47. 시 119:105 [↑](#endnote-ref-47)
48. 계 21:1-4 [↑](#endnote-ref-48)
49. 마 25:1-13 [↑](#endnote-ref-49)